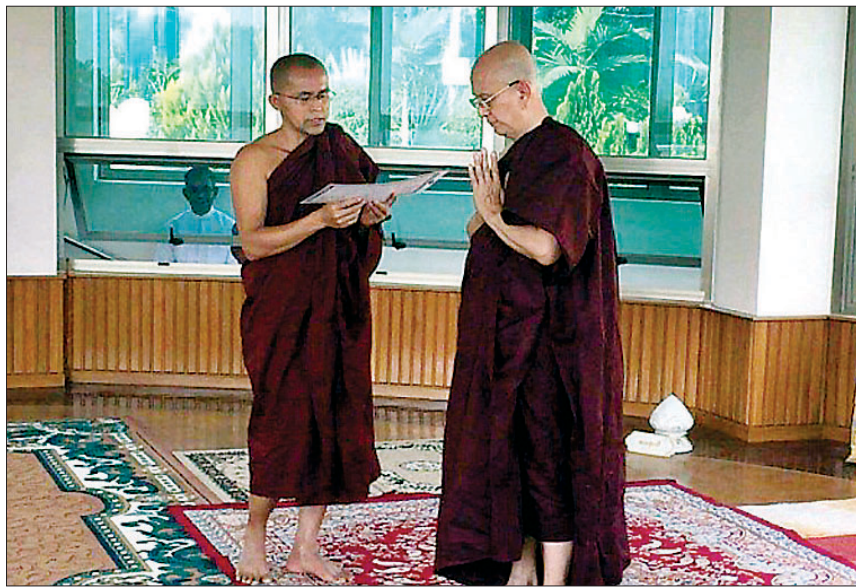


미얀마 前 대통령, 퇴임 4일 만에 '불교 귀의'

테인 세인, 4월 4일 승계 받아... 5일 간 수련

과거 비공식적 출가 의지 밝혀 "퇴임 직후 승려로 입문할 것" 민주적 정권교체 '견인자' 역할 미얀마 '최후 군부통치자'로 남아



미얀마 정보부는 4월 5일 미얀마 前 대통령 테인 세인(사진 오른쪽)이 승계를 받고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출처=The guardian>

아웅 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에게 정권을 이양한 미얀마 前 대통령 테인 세인(Thein Sein · 71)이 퇴임 직후 4일 만에 불교에 귀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영국 언론 'The guardian'은 4월 5일 "테인 세인이 그가 4일(현지 시각) 승려로서 계를 받는 승계(僧戒) 의식을 치렀다"며 "이는 미얀마 최대 야당을 이끄는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역사적인 정권 탈환에 성공하며, 테인 세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 4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은 미얀마 정보부가 '페이스북' 계정에 테인 세인 前 대통령이 삭발하고 가사를 걸친 채 승계를 받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며 알려졌다. 이 사진과 함께 미얀마 정보부는 "테인 세인은 뽀우린(Pyin Oo Lwin) 외곽의 담

마 디파티 사원에서 5일 간 머물며 명상 수련 등에 임할 예정"이라며 "그의 범명은 우 탄디 담마(U Thandi Dhamma)"란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테인 세인이 완전히 '출가(出家)'한 것인지, 일시적으로 절에서 수련활동을 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에선 남성들이 성인이 되기 전 승계를 받는 것이 흔히 치러지는 의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테인 세인은 과거에도 출가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미얀마 여론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The guardian'은 "테인 세인의 임시적인 승려 활동이 사전에 공개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지만, 그는 지난 1월 불교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 이후로 줄곧 승계를 받는 것에 대해 고민해 왔다"고 언급했다.

미얀마 정보관에 따르면 테인 세인은 '세계 불교 컨퍼런스(the World Buddhist Conference)' 참석 당시,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승려인 시타구

(Sitagu)에게 승려가 될 것을 권유받은 바 있다. 당시 테인 세인은 시타구 스님에게 "현재는 국가의 소임을 맡아 매우 바쁘니, 대통령 임기를 마치자마자 불교 승려과정에 입문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미얀마의 '마지막 군부 통치자'로 남은 테인 세인은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미얀마 최대 야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NLD)가 민주선거에서 압승함에 따라 지난 3월 20일 권좌에서 내려왔다.

당초 '11.8미얀마총선'에서 NLD가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53년 간 권력을 독점해 온 군부정권이 순순히 정권을 이양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있었다. 군부정권은 1990년 총선 때도 NLD가 의석의 80%를 휩쓸었지만 수치 여사를 가택 연금하고 정치범들을 감금하는 등 민주화 탄압을 감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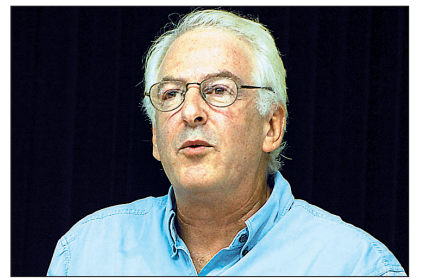
이에 따라 여론은 이번 역사적인 정권 교체에서 테인 세인 前 대통령이 견인자 역할을 했단 평을 내놓고 있다.

테인 세인은 2011년 3월 취임한 후 빈민층을 위한 무상복지 정책 확대, 외국 자본 유입을 허용하는 등 혁신적인 복지 및 경제 정책을 펼쳤다. 또한 야당에 대한 탄압을 완화하고, 언론 사전검열을 폐지하는 등 미얀마를 민주화로 이끄는 데 기여했다.

박이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美은퇴교수, 선 수행 강좌로 '인기몰이'

헝크 레이저, 학생·주민 위한 불교 강좌 개설



미국의 한 교수가 은퇴 후 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불교 교양수업을 열어 눈길을 끈다.

미국 알라바마 대학신문인 '더 크림슨 화이트(The Crimson White)'는 "알라바마 대학 명예교수가 선불교 명상 수업을 통해 학생 및 지역민들의 삶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인공은 알라바마대 영문과 명예교수인 헝크 레이저(사진). 그는 매주 월요일 오후 5~6시 피커슨 센터에서 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레이저 교수는 그의 수업 '선불교와 예술의 근본적 접근(Zen Buddhism and Radical Approaches to Art)'을 통해 명상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명상모임 '잔잔한 물결의 승가(Quiet Tide Sangha)'를 만들었다.

레이저 교수는 "수업 명칭이 거창하지만 사실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 그냥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저 교수는 대학생이었던 1960년대에 처음 명상을 시작했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동양 종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때였다.

그는 "선 수행을 시작한 후부터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특히 수행을 하면서 나의 분노 기질을 조절 할 수 있게 되고, 삶이 편안해 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행을 통해 좋고 싫음의 분별심을 내려놓게 됐다. 나는 학생들이 '분별심을 버리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라며 수업을 개설했다"고 덧붙였다.

레이저 교수의 수업은 참가자들에게 쉽고 편안하게 다가가기 때문에 인기를 끈다. 수강생 중 제이콥 심스(알라바마대 · 2년)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매료돼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특히 나는 좌선을 즐긴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우울감이나 분노가 가라앉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인 수행을 통해 삶이 변화했다"는 심스는 "화가 날 때 마다 마음을 가라앉힌 뒤 심호흡을 하고 명상에 잠겼다. 그러면 점점 화가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 아담 밀러는 "선불교에 관심을 가지지 얼마 안 됐지만 레이저 교수가 쉽고 재밌게 불교를 설명해줘 꾸준히 참석한다"며 "집에서 가족들과도 함께 명상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레이저 교수는 앞으로도 학생과 지역민들을 위한 강좌를 꾸준히 열 계획이다. 그는 "수업을 다음 학기에도 열 계획"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불교의 참맛을 알고 수행을 통해 삶의 변화를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몽골에 대규모 불교명상센터 건립... 달라이라마 등 참여

2018년 완공... 명상·휴식 겸한 '불교교육 공간'

예술가와 종교인이 참여해 만드는 대규모 명상센터가 몽골에 건립된다.

'허핑턴포스트'는 4월 7일(현지시간) "몽골 울란바토르 근교의 불교 성지 '하트 힐(Hart Hill)'에 명상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불교교육센터가 2018년 개원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대 미륵(The Grand Maitreya)' 프로젝트라 불리는 이번 건립사업에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함께 참여, 진행 과정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어 눈길을 끈다. 프로젝트 감독을 맡은 마이클 포츠는 "미국과 몽골의 예술가·개발자와 더불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함께 참여해 명상 시설과 불교 아카데미 센터를 짓고 있다"며 "사랑과 자비를 상징하는 53m 규모 대형 미륵보살상도 조성하고 있어 향후 전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세워지는 '하트 힐'은 몽골과

마교(티베트서 동방으로 전파된 불교의 일파)의 수장이 있는 곳이다. '총수장'을 몽골어로 점춘담바 쿠투투(Jebsundamba Khutuktu)라고 하는데, 이는 달라이 라마가 제1대 범왕이 된 자나바자르에게 부여한 칭호다.

포츠 감독은 "자나바자르(Zanabazar)는 칭기즈칸의 직계 후손으로, 라마불교 제1대 범왕이다. 그는 몽골 불교, 예술, 과학, 문학, 언어학 등에서 경탄할 만한 업적으로 몽골인들의 존경과 지지를 받은 인물"이라며 "센터가 세워지는 하트 힐은 몽골인들에게 상징적인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같은 대규모 명상센터의 건립은 과거 사회주의 통치로 사라진 몽골 내 불교문화가 번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몽골에 사회주의 체제가 성립한 후 몽골 스님들의 삶은 피폐해 졌다. 1930년대 스탈린 숙청기간에는 1만 7천명으로 추



2018년 완공 예정인 몽골 내 대규모 불교명상센터는 53m 규모의 대형 미륵보살상도 조성하고 있어 전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사진출처=허핑턴포스트>

산되는 라마승들이 처형당하기도 했다.

이에 몽골 불교는 최근 몇 십년간 소비에트(Soviet)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 불교지도부 '황모과'를 중심으로 변화를 꾀했다. 1990년 사회주의 몰락 직후 단 3곳뿐이었던 사원은 국가로부터 재개 허락을 받은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

어 지금은 170개에 이른다.

포츠 감독은 "센터는 2018년 완공 후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개방될 것"이라며 "또한 달라이 라마가 몽골에 방문할 시 센터에 머무는 등 몽골불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한인女 노동 착취한 승려, 11억 지급 판결

12년 간 감금·협박... 이웃 도움으로 2011년 탈출

지난 12년 간 뉴욕의 한 한인 승려에게 노동 착취를 당해 온 한인 여성이 긴 법정공방 끝에 승소했다.

'NewYork Post'는 4월 1일 12년 동안 불교 승려 집안에서 강제 노동착취를 당해 온 한인 여성 사건을 소개하며, "현대판 노예로 살았던 그녀가 승려와 그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933,345달러(한화 약 10억80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뉴욕주 연방동부법원은 지난 3월 29일 체불임금과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 9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원고 오옥진(76) 씨는 1998년 한국 직업소개소를 통해 미국으로 이주, 퀸즈리틀넥에 있는 한인 승려 최수복 씨의 집과 사찰의 가정부로 취직했다. 당시

오 씨는 매달 1,000달러(한화 약 115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계약했지만, 최 씨는 불법체류의 약점을 이용해 추방·살해 등의 위협을 하며 하루 14시간이 넘는 강제 노동 착취를 해왔다. 그러던 중 오 씨는 2011년 이웃의 도움으로 최 씨의 집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임금 체불을 요구할 때 마다 피고는 살해 협박과 감금을 일삼았으며, 원고는 장보려 가는 것 외에 어떤 외출도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시멘트 바닥에서 잠을 자며 피고와 가족들의 노동 착취에 시달렸다"고 판결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담당한 마린 고(Marilyn Go) 판사는 최 씨의 반복적인 법원 출석 거부로 인해 지난 4월 첫째 주 채무 불이행 집과 사찰의 가정부로 취직했다. 당시

바쁜 하루... 삭발할 때 상처없이 밀어지는 방법은 없을까?

머리결이 강해 고생하는데... 스님! 削髮면도 힘드셨죠! 이젠 안심하십시오! 스님 삭발전문 비누가 있습니다

스님 삭발용 편백비누 削髮快

편백원목오일 초정광전수 함유 부드러운 삭발 두피손상방지 피부자극최소화

■ 구입 문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로 1961 ☎(043)296-7776 | 010-3280-7776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패북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며 가방에 담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장엄패북

- 패북 크기: 가로 200cm × 세로 300cm
- 구성 품: 휴대용 가방(패북+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송: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판매처

- 구입문의: 현불삼 02)2004-8214
-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